

# 가디언즈 월드(Guardians World)

## 배경 스토리

마나에 의해 탄생하고 마나의 흐름으로 유지되는 세계, 다룬(Darun).

초기 다룬에는 자연과 정령들만이 존재했다. 정령들은 마나가 흐르다가 한 곳에 뭉쳐 형성된 되었기 때문에 자연과 다르게 마나로만 구성된 존재였다. 그래서 인지 정령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에 깃들어 흐름의 일부가 돼서 세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가끔씩 지성을 가진 상위 정령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정령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정령을 이끌어 자연에 깃들게 하며 마나의 흐름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런 정령들의 희생으로 인해, 다룬에는 마나의 흐름이 빨라지며 점차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다룬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나를 느끼고 다룰 수 있었다. 이들은 생활에 마나를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룬이 어둠에 물들어가며 북쪽 하늘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이 균열에서는 다룬에 존재하지 않던 에너지가 흘러나왔다. 이 에너지는 자연에 깃들어 자연 재해를 일으키고, 생명체에게 깃들어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등 다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성을 가진 존재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이 에너지에 카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상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1년이 흘렀다.

다룬의 하늘에 균열이 생긴 지 딱 1년이 되던 날, 균열이 스스로 닫히며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카오스가 다룬에 영향을 미쳤고 다룬의 생명체들은 더 이상 각자의 힘 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가디언이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다룬니움이라는 중앙 기구를 세웠다.

가디언들은 다룬을 지키기 위해 카오스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진행했다. 연구를 하던 중, 우연히 카오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감지되는 한 섬을 발견하고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섬을 조사하며 섬의 가운데에 동굴이 원인임을 알게되었고, 조사단장 더크스를 선두로 동굴에 들어갔다. 그 순간, 동굴 속 방대한 카오스들이 더크스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더크스는 다룬에 균열이 생기고 카오스가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했고 마나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다룬이 스스로 붕괴되어가는 과정에서 균열과 카오스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더크스는 이 사실을 알고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세계의 선택을 받았고, 자신이 다룬의 구원자가 되어 지금의 다룬을 파괴한 후 새로운 다룬을 창조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조사단원들에게 카오스를 주입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만든 다음 다룬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디언들은 더크스와 그의 세력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룬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시간의 정령인 크로노가 미래를 관측하게 되며 한 가지 예언을 했다. 예언은 5년 뒤 한 인간이 등장하여 가디언을 이끌어 더크스를 저지하고 다룬을 지켜낸다는 것이었다. 가디언들은 이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더크스에게서 피해다니며 예언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다.